

Eugene Daily Snapshot

휴장 동안 비껴가 있던 악재 소화

유진투자증권

2026.09.29

글로벌 매크로팀 이준영_02)368-6136_lee.jy@eugenefn.com

주식 (26.9.28)

(단위: pt, %)

		증가	1D	1W	1M	YTD
한국	KOSPI	6,889.74	-2.7	2.6	1.5	63.5
	KOSDAQ	846.58	0.2	3.0	1.0	-8.5
미국	S&P500	7,683.69	-0.8	-1.0	-0.4	12.2
	NASDAQ	26,820.38	-0.9	-1.1	1.6	15.4
	필라델피아 반도체	12,465.24	-1.6	0.3	8.7	76.0
유럽	EUROSTOXX50	6,301.28	0.0	-0.3	-2.8	8.8
	독일 DAX40	25,374.42	-0.1	-0.8	-4.5	3.6
아시아	일본 NIKKEI225	65,877.62	-0.7	3.1	-0.8	30.9
	대만가권	48,024.60	-0.3	3.8	7.3	7.3

채권

(단위: %, 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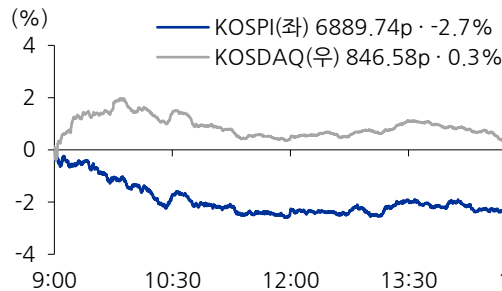
		증가	1D	1W	1M	YTD
한국	국고채 3년물	4.12	11.3	5.6	33.1	116.6
	국고채 10년물	4.54	14.7	3.3	25.5	115.4
미국	미국채 2년물	4.93	6.7	18.4	58.3	145.2
	미국채 10년물	5.24	8.0	28.8	52.7	107.2
	미국채 30년물	5.55	5.6	26.6	34.5	70.6
	NVDA CDS 5년물	89.55	2.6	9.0	7.3	47.8
	ORCL CDS 5년물	251.45	14.4	43.6	48.5	107.8

환율 및 원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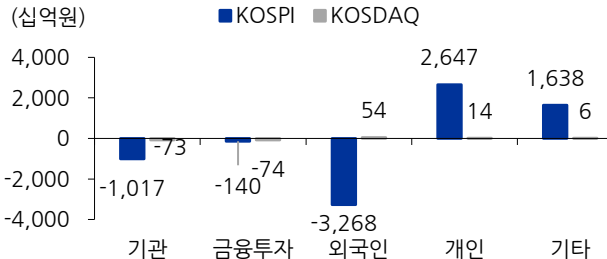
(단위: %)

		증가	1D	1W	1M	YTD
환율	원/달러(원)	1,365.10	0.6	-1.2	-0.5	-5.1
	달러지수(pt)	101.14	0.1	0.8	1.5	2.9
원자재	WTI 연결물(\$)	92.60	0.2	-3.3	11.0	61.3
	금 연결물(\$)	4,168.40	-3.5	-4.9	-8.0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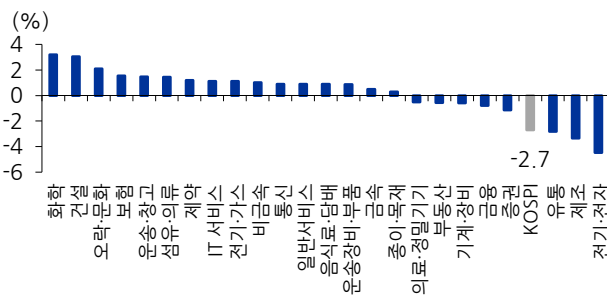
KOSPI · KOSDAQ 일중 등락률 추이 (26.9.28)



투자자별 수급 동향



KOSPI 일간 업종별 수익률 (26.9.28)



간밤 해외 증시

유가 +4.5%·10년물 5.24%에 위험자산 회피 확산

- **뉴욕증시 3대 지수는 美이란 협상 난항에 동반 하락**. 다우 -0.7%·S&P500 -0.8%·나스닥 -0.9%·필 반도체 -1.6%. 방어업종(필수소비 달러트리 +1.7%·헬스케어 비아 트리스 +2.5%)과 에너지(엑스모빌 +1.2%) 제한적 상승.
- **美이란 협상 초점 불일치 & 유가·금리 동시 상승**.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제안을 거부하며 국제유가 급등. WTI 근월물 96.5\$(+4.5%). 이란은 7일 내 해협 재개방·핵협상 재개를 제시했으나 미국은 핵 프로그램 양보를 요구.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 우려로 이어지며 10년물 미 채금리 5.24%(+8bp), 금리 상승에 안전자산도 동반 급락. 금 4,168.40\$(-3.5%)은 61.7\$(-4.8%). CME FedWatch는 10월 FOMC 인상 확률을 70%로 반영.
- 한편 **시 반도체 밸류체인은 오픈AI의 안정성 점검 목적 AI모델 훈련 중단 & 오라클의 데이터센터 불가항력 조항 통지에 하락**. 퀄컴(-7.2%)·인텔(-5.7%)·마이크론(-2.6%). 메타(-4.7%)도 급등세 반납하며 차익실현 매물 출회. 엔비디아(+1.7%)는 사상 최대 1,5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확대 발표에 장중 +3.6%까지 상승.

전일 국내 증시

코스피 상위 5 종목 하락, 중소형주로 순환매

- **국내 양대 증시는 대형주 약세 속 엇갈림**(코스피 -2.7%·코스닥 +0.3%). 고금리라고 유가가 이어졌음에도 **코스피 상승 종목이 500개를 넘고 하락은 210개**에 그쳤다는 점이 이날 증시의 특징. 금리 상승을 경계하면서도 지수 내 순환매로 대응.
- **매크로는 여전히 부담**. 트럼프 대통령, 호르무즈 재개방을 둘러싼 이란 측 요구 거부 & 추가 협상엔 모호한 입장. 유가 하락 기대에 대한 불신 확산되면서 WTI 근월물 +2%로 일주일 만에 95달러 재근접. 미국 10년물 5.22%로 주간 +26bp.
- 투자심리 훼손보다 **수급 요인이 컸다고 판단**. 지수 하락은 상위 5개 종목(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약세에 집중. 기관·외국인은 대형주 매도·중소형주 매수. 지수 비중 큰 반도체 대형주 익스포저를 덜어 변동성을 낮추고, 지수 영향력이 작은 종목으로 분산하는 비중 조정. 지수는 빠져도 종목 체감은 양호했던 배경.
- **주 후반 이벤트 대기**. 1)수요일(30일) 미국 PCE 물가 & 마이크로 실적, 2)목요일(10/1) 한국 9월 수출, 3)금요일(2일) 미국 9월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 마이크로에 이어 10월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대기 중인 만큼, 실적 기대감이 살아날 경우 이번 주 소외됐던 대형주로 수급이 되돌아올 가능성.

주: 한국시간 오전 7시 · KRX 정규장 기준 자료 출처: 코스콤, Quantwise, 유진투자증권

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전송/인용/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ugene Daily Snapshot



업종 및 특이 테마 동향

담관암 신약 FDA 허가 & 오라클發 AIDC 지연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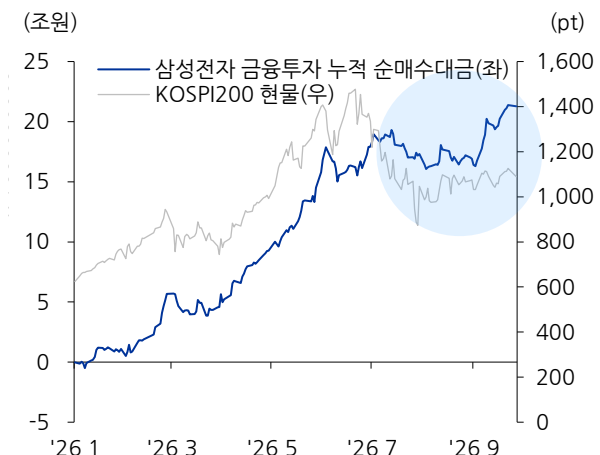
- **제약바이오-신재생-정유 강세** → 반도체-전력기기 약세. HLB 담관암 신약 FDA 허가 & 뷰노 중국 수출 계약에 건강관리 급등. 오라클發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연 우려 & 미국채 금리 급등에 반도체-전력기기 동반 하락.
- **(제약바이오)** HLB(上), 담관암 신약 FDA 허가. 뷰노(+22.4%)는 中 귀룬과 하이난성 독점 판매계약 체결 → 의료시 동반 강세(루닛 +19.0%-쓰리빌리언 +25.5%).
- **(신재생)** 美 블루웨이트 기대 & 관세發 밸류체인 가격 상승. 태양광 모듈-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한화솔루션(+14.2%)-OCI홀딩스(+10.9%) 급등.
- **(에너지IT하드웨어)** 마이란 갈등 재고조에 유가 상승. SK이노베이션(+6.0%)-S-Oil(+4.2%). 반도체 약세에도 PCB 강세. LG이노텍(+8.0%)-코리아씨키트(+6.0%).
- **(반도체)** 오라클發 AI 데이터센터 구축 지연 우려 & 미국채 금리 급등. 삼성전자(-5.4%)-SK하이닉스(-5.1%) 동반 급락 & 소부장까지 확산(원익IPS -7.9%).
- **(전력기기-전선)**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기대 후퇴에 동반 약세. 효성중공업(-4.0%)-가온전선(-5.7%)-대한전선(-3.4%).
- **(코스닥)** 제약바이오-2차전지 강세 → 반도체 소부장 약세로 강보합 마감. 에코프로 비엠(+6.0%) & 양자암호 강세(아이씨티케이 +17.0%-케이씨에스 +11.1%).

오늘의 클로즈업

삼성전자 배당락일(9/29 일) 금융투자 매물 출회 가능성

- 삼성전자는 90~110조원 주주환원 계획 가운데 정규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 규모의 3분기 현금배당을 실시할 예정임(10월 이사회 확정).
- 금융투자자는 배당락 직전 1주간 KOSPI200 현물 2.8조원(삼성전자 1.6조원)을 순매수하고 지수선물을 3.5조원 순매도해 매수차익거래 포지션을 쌓았음.
- 배당락일에는 이 포지션이 청산되며 현물 매도와 선물 환매수가 함께 나올 수 있음. 매집 규모를 감안하면 당일 금융투자자의 삼성전자 순매도는 종전 최대(2021/12월 - 4,300억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음.
- 과거 특별배당(2020/12, 2025/12)에서는 개인이 매도물량을 받아냈으나 이번에는 수급 환경이 다름. 최근 20거래일 누적 금융투자자는 코스피 현물을 +6조원 순매수한 반면, 개인과 외국인도 각각 -16조원, -18조원을 순매도. 고객 예약금은 6월 고점 대비 -27% 감소. KOSPI 일평균 거래대금도 9월 22조원으로 8월(26조원) 대비 -17%.
- 코스피는 같은 기간 기타법인(자사주 매입) 순매수(+31.3조원)에 의존하고 있음. 이번 배당락이 단기적인 수급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음.

2026년 금투 삼성전자 누적순매수 vs KOSPI200 현물



종시 자금 동향

		(단위: 조원)			
		9/23 일	1D	1W	1M
고객예약금		101.6	0.65	2.06	0.89
신용잔고	거래소	25.1	-0.08	-0.38	-0.01
	코스닥	7.2	0.04	0.09	0.39
수익증권	주식형(전체)	348.2	2.64	151.20	146.66
	채권형(전체)	215.1	0.19	13.25	12.58
MMF		247.9	-2.57	-10.81	-11.73

KOSPI 52 주 신고가 · 신저가

52 주 신고가 (5 종목)		52 주 신저가 (11 종목)	
유니퀘스트	▲6.3	SUN&L	▼9.1
SK 이노베이션	▲6	대양금속	▼7.8
S-에우	▲5.5	진흥기업 2 우B	▼6.4
KPX 케미칼	▲1.2	한화머시너리엔서비스홀딩스	▼4.7
대한항공	▼0.6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4.3
		지누스	▼3.4
		동원수산	▼3.2
		SG 글로벌	▼2.8
		대교우 B	▼0.9
		현대로템	▲0.2

KOSPI 기관/외국인 합산 순매수 상위 종목

순위	종목명	증가(원)	등락률	대금(억원)
1	대우건설	18,680	▲7.1	700
2	LG 이노텍	578,000	▲8	652
3	SK 이노베이션	158,200	▲6	643
4	NAVER	197,700	▲1.5	530
5	삼성 SDI	533,000	▲2.3	480
6	LG 에너지솔루션	364,000	▲3.6	466
7	한화솔루션	33,350	▲14.2	451
8	LG 전자	214,500	▲2.6	430
9	현대건설	124,600	▲2.9	231
10	OCI 홀딩스	228,500	▲10.9	194